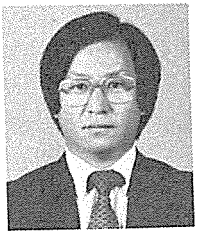
뇌졸중이란 어떤 병인가.



이 권 전

뇌졸중은 사망원인 제1위

뇌혈관 장애로 인한 질환을 일컫는 총칭으로서 뇌혈관에 순환장애가 일어나 갑자기 의식장애와 함께 반신불수를 초래하는 급격한 뇌혈관병을 뇌졸중이라고 말하며, 구미에서는 "벼락같은 강타"를 받았다는 "Stroke나 Apoplexy" 라하고 한국에서는 옛날부터 "바람 맞았다"는 뜻으로 중풍(中風)이라고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사망 원인의 제1위를 차지하고 있는 무서운 사신(死神)인 뇌졸중(腦卒中)이란 도대체 어떤 병인가? 어제까지만해도 평소와 다름없이 직장에 다니던 주위 사람이 갑자기 반신불수가 되었다거나, 스포츠 중계를 보던 중 흥분끝에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를 보는 수는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복병처럼 자신도 모르게 매복해 있다가 일격에 치명타를 주는 뇌졸중은 사실 암(癌)보다도 발병율이나 사망율이 훨씬 높아 정말 무서운 사신(死神)으로 불리울만한 질병이다.

구미에서는 뇌졸중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심장병, 암에 이어 3번째로 많아 모든 사망원인의 1/6을 차지하는데, 우리의 경우도 통계적으로는 암과 함께 약 15%를 점하고 있어 매년 약20만명 정도가 뇌졸중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암보다도 뇌졸중으로 사망하는 예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특히 겨울철에 더욱 많이 희생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에서 해결되기 어려운 골치아픈 문제들을 "암적 존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으나 그 보다도 "뇌졸중적 존재"라는 말을 쓴다면 더욱 실감을 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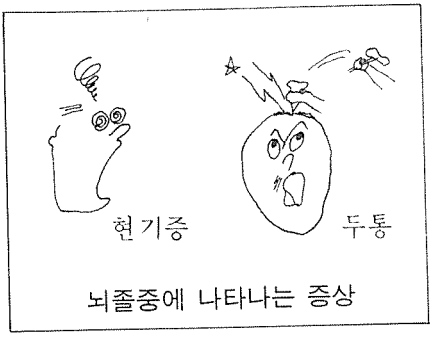
항간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뇌졸중(*Cerebrovascular accident*) 이라는 병명은 뇌혈관장애로 인한 질환을 일컫

는 총칭으로서, 뇌혈관에 순환장애가 일어나 갑자기 의식장애와 함께 반신불수를 초래하는 급격한 뇌혈관병을 말한다. "졸지에 쓰러진다."는 뜻의 뇌졸중은 구미에서도 "벼락같은 강타를 받았다."는 뜻의 "STROKE"나 "APOPLEXY"등으로 불리워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바람맞았다."는 뜻으로 중풍(中風)이라고 말하여 왔다.

뇌졸중은 흔히 뇌출혈(腦出血)과 뇌경색(腦梗塞)의 두가지로 나누는데, 뇌출혈은 주로 고혈압등으로 뇌혈관이 터져서 출혈된 피가 뇌속에 모여서 뇌조직을 압박하여 여러 증세를 나타내는 것이고, 뇌경색은 혈전(血栓)이나 전색(栓塞)등으로 뇌혈관이 막혀서 피가 통하지 못하여 그 부위의 뇌기능을 상실함으로써 여러 증세를 보이는 질환이다.

먼저 뇌출혈은 다시 두가지로 세분할 수 있는데 뇌실질내출혈(腦実質内出血)과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이다. 첫째로 뇌실질내출혈은 대뇌나 소뇌의 실질 안에서 출혈하는 것으로써, 평소에 혈압이 높은 사람에게서 잘 돌발하는데 잠자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고 대개 활동하는 낮시간에 갑자기 발생한다. 보통은 50세 이후의 고혈압 환자에게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추운 겨울에 발생빈도가 높으며 의식장애나 운동마비 같은 전신소견이 뚜렷이 보인다. 출혈 발생시의 처음 소견은 대개 갑자기 쓰러지면서 첫마디가, "어지럽다."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경우가 많고, 다음엔 대개 토하게 된다. 그와 동시에 몸의 반신이 말을 듣지 않음을 알게되며(이때 대개 출혈된 부위와 반대쪽 팔·다리가 마비됨), 의식은 보통 수 분에서 한·두시간 동안에 점점 혼탁해진다. 환자가 깊은 혼수에 빠져 들어가면 깨워도 일어나지 않고, 심한 자극을 몸에 주어도 반응하지 않게되며, 호흡소리를 요란하게 내면서 거칠어지고 1분간에 30회 이상으로 빠르게 숨을 쉬는 경우도 있다. 발병 직후 1시간 내로 깊은 혼수에 빠져들어가서 의식불명이 계속되면 24시간 내에 사망하는 수가 많고, 의식장애가 처음부터 그리 길지 않고 24시간 정도 경과 후 큰 소리로 불렀을 때 반응이 있을 정도면 생존할 확률이 꽤 높으며, 처음부터 계속 의식이 좋은 사람은 대개 예후가 양호하다.

뇌출혈의 두번째 형태로 지주막하출혈이 있다. 두개골 내에서 뇌척수액이 흐르는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막을 지주막이라고 하는데, 지주막하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뇌실질 내에 출혈이 되는 것이 아니고 뇌척수액이 흐르는 공간으로 출혈이 되는 것이므로 뇌척수액 자체가 출혈된 혈액으로 혼합되어 피같이 빨갛게 되는 것이다. 이의 가장 많은 원인은 뇌기저부에 있는 동맥의 선천적인 기형인 동맥류의 파열이다. 따라서 이는 한창 일할 나이의 활동이 왕성한 젊은이에게서 많이 보게되어,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



뇌졸중에 나타나는 증상

까움을 금치 못하게 하는 질병이다. 다행히 의식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두통이 매우 심하고, 뿜어내는 듯한 구토를 격심하게 하며, 뒷목(골)이 뻣뻣하게 경직된다. 특징적인 것으로는 발병시에 갑자기 마치 도끼로 뒷머리를 "꽝" 하고 찍어 패는 듯한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게 된다. 예후는 첫 발작시에 약 50%정도가 사망하는데, 일단 생존하게되어 2개월 이내에 재발이 없으면 그 이후의 재발율은 매우 낮다.

다음 뇌경색증은 뇌혈전증(腦血栓症)과 뇌전색증(腦栓塞症)의 두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뇌혈전증은 노년층에 많은 동맥경화증이 그 주된 원인인데, 원래 연령이 높아질 수록 동맥은 경화되는 경향이 있는데다가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함께 있거나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에는 동맥경화증이 더욱 심해지면서 동맥내에 지방질이 침착(이것을 혈전이라고 함)되어 동맥이 서서히 좁아지게되고 급기야는 아주 막혀버리게 된다. 이렇게되면 그 동맥이 혈액을 공급하던 부위는 영양 및 산소공급이 차단되어 뇌기능을 상실하게 되며, 그 결과 나타나는 증세를 말한다. 대개 아침에 깨어보니 한쪽의 손발이 무겁고 둔해짐을 느끼게되며, 이런 마비증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심해져서 말을 못하거나 마침내는 한쪽 팔·다리를 전혀 못쓰는 반신불수 상태가 되기도 한다. 이때 심하면 의식도 점점 혼미해지는 수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경미한 정도로 와서 열심히 물리요법을 하면 회복되는 수도 있다.

다음으로 뇌전색증은 심장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심장내에 있던 피떡(이를 전색이라고 함)이 어느 순간 떨어져나가 동맥을 통하여 뇌로 운반되고, 그 크기에 맞는 뇌혈관에 가서 막힘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따라서 뇌전색증은 뇌출혈과 비슷하게 반신불수가 갑자기 발생한다. 그러나 마비증상은 발병 직후보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빨리 좋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보통이다.

위에 말한 4가지 형의 뇌졸중 이외에도 일과성뇌허혈증(一過性腦虛血症)도 있는데 이는 한쪽 수족에 갑자기 약간 힘이 빠지거나 정신이 잠시동안 아뜩해져서 일상하던 일을 일순간 잘못하게 되는 경우인데, 혈압이 매우 높은 환자들에게서 뇌출혈 없이 뇌에 부종등이 생김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때는 혈압을 조절하면 대개 24시간 이내에 자연 회복되는 경향을 보인다.

(필자=국립경찰병원 내과과장·의박)